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22 한국의 선리논쟁



▶ 한줄 요약
한국선의 역사에서 선리논쟁으로는 고려 중기 이후 임제종의 종지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적용의 문제가 두드러졌다.

임제삼구 해석 놓고 전개된 선리논쟁

1. 선종의 논쟁

선의 종지에 대하여 불립문자(不立文字)이고 교외별전(敎外別傳)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불리문자(不離文字) 교내별전(敎內別傳)이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언설과 문자의 방편을 통해서 정법안장이 전승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만큼 언설과 문자는 선의 종지를 표현하고 전수하는 방식으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언설과 문자로 이루어진 선문헌에는 선의 교의(敎義)를 비롯하여 선의 역사 · 문화 · 수행 · 행위 · 문답 등 다양한 소재가 담겨 있다.

따라서 선종의 역사와 사상과 문화는 선의 문헌을 벗어나서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선문헌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아 선의 역사가 전개되는가 하면, 다시 선의 역사로부터 선의 문헌이 영향을 받아 새롭게 간행되기도 한다. 또한 그 내용은 누가 기록했는가에 따라서 상반된 내용으로 기록되는가 하면, 상반된 내용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 결과 동일한 선리(禪理)의 기록에 대해서도 그것을 해석하고 활용하는 견해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선리의 논쟁은 바로 이런 점에서 가장 첨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선리의 논쟁은 인도선의 경우에 수많은 선법의 창출과 그 전승과 해석과 실천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보리달마(菩提達磨)로부터 시작되는 중국선의 역사에서는 보다 분명한 이슈를 가지고 나름대로 선리의 논쟁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법맥의 정통과 방계(傍系)에 대한 기준이 되는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자파에 대한 긍지와 타파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가령 달마의 선법을 누가 계승했는가 하는 점은 선종 초기의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논쟁이었다. 소위 8세기 중국의 선종사에서 불거진 북종(北宗)과 남종(南宗)의 정통과 방계의 논쟁이 그것이었다.

나아가 남종의 역사에서 다시 당말(唐末) 및 오대(五代) 초기에 형성된 선종오가(禪宗五家)의 분립은 각 문정(門庭)의 교화 방편에 따른 선리의 이해가 각 종파로 전승된 법맥의 문제와 결부됨으로써 자파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전등사서와 어록의 출현으로 인하여 더욱더 다양하고 폭넓은 선리의 논쟁으로 드러났다.

가령 인도의 제27대 조사 반야다라(般若多羅)의 예언으로부터 비롯되어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의 홍주종(洪州宗) 세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출현한 천왕 도오(天王道悟)의 날조된 법맥의 주장은 선종 법맥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불거졌는가 하면, 조동종(曹洞宗)의 오위사상(五位思想)이 조동종 이외의 다른 종파로까지 전개됨으로써 오위의 정통 논쟁과 오위의 교의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도 또한 선리논쟁의 역사를 화려하게 장식해주었다. 법맥 내지 선리뿐만 아니라 수행의 측면에서도 송 대에 새롭게 출현한 묵조선(默照禪)과 간화선(看話禪)의 수증관도 등장하여 묵조선 측에서는 간화선 측을 향하여 대오선(待悟禪) 내지 제자선(梯子禪)이라고 비판하였는가 하면, 간화선 측에서는 묵조선 측을 향하여 암증선(暗證禪) 내지 묵조사선(默照邪禪)이라고 서로 비판하였다.

2. 한국선의 선리논쟁

이와 같이 다양한 중국 선종의 선리논쟁 뿐만 아니라 한국선에서도 마찬가지의 선리논쟁의 역사가 등장하였다. 가령 나말 및 여초에 출현한 구산문(九山門)의 교의 가운데서 선과 교의 차별일치 · 융합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은 선의 측면에서 교학과 비교한 일방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와는 달리 본격적인 선리의 논쟁으로는 고려 중기 이후부터 임제종(臨濟宗)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까닭에 임제의 종지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적용의 문제가 두드러졌다.

그 연원은 물론 임제종의 세력이 주축을 형성했던 까닭에 〈임제록〉에 근거한 삼구의 해석과 적용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임제삼구에 대하여 분양 무덕(汾陽無德, 947~1024)의 어록에 보이는 이해와 그것에 대하여 각범 혜홍(覺範慧洪, 1071~1128)이 〈임제종지(臨濟宗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삼구(三句)와 삼현(三玄)과 삼요(三要) 등에 대한 중국적인 이해는 이윽고 고려 후반기에 진정국사(眞靜國師) 천책(天頙, 1206~1294)의 〈선문강요집(禪門綱要集)〉의 찬술로 계승되었다. 이로써 〈선문강요집〉에 보이는 삼구의 해석방식의 모습은 임제의 삼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에서 등장했던 선리의 논쟁에 대해서는 비교적 단순하고 분명하면서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선문강요집〉의 내용은 임제종의 종지와 운문종의 종지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특히 임제종의 종지에 대한 선리의 논쟁은 조선시대 초기 구곡각운(龜谷覺雲)의 〈염송설화(拈頌說話)〉에서 널리 인용 및 논의되었고, 이후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 크게 부각되었다. 백파 긍선(白坡亘璇, 1767~1852)은 58세(1824)때 〈선문오종강요사기(禪門五宗綱要私記)〉를 통해서 선종오가의 선리에 대하여 나름대로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리고 이후 66세(1832)년에는 다시 〈선문수경(禪文手鏡)〉을 저술하여 임제삼구를 중심으로 삼처전심(三處傳心)과 삼종선(三種禪) 등에 임제삼구의 선리를 응용함으로써 그에 대하여 이후로 선리논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선문수경〉의 선리에 대하여 제일 먼저 비판을 가한 인물은 초의 의순(草衣意恂, 1786~1866)이다. 초의는 〈선문사변만어(禪門四辨漫語)〉에서 백파의 견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점에서 반박하고 그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후에 우담 홍기(優曇洪基, 1822~1881)는 백파 문중에 속하는 인물이면서도 〈선문증정록(禪門證正錄)〉에서 초의와 다른 관점에서 백파를 비판하였다. 따라서 초의와 우담이 백파의 견해를 비판한 것은 전혀 별개의 것에 속한다. 그런 만큼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문의 전체에 걸친 보편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자 다시 백파의 문중에 속하는 설두 유형(雪竇有炯, 1824~1881)은 백파의 견해를 옹호하고, 초의와 우담의 견해에 대하여 다시 반박을 가한다.

이후에 다시 축원 진하(竺源震河, 1861~1926)는 백파의 견해를 비롯하여 우담과 설두의 견해까지 언급하면서 타당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다만 초의의 견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진하는 이전에 초의와 우담과 설두가 각각 강도 높게 비판한 태도와 다르게 비교적 미약한 비판을 가하고, 궁극에는 그 비판을 수용하고자 하는 건설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진하는 이전의 선리비판에 대한 종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비판적인 계승을 지향하였다.



임제의현 진영.

임제종 중심의 선리논쟁 시작
횡적으로 드러난 착종 관점과
횡적개념 주제의 구심점 관점
조선후기, 통시적 주제 포함돼

한국 선종사에서 이와 같은 선리논쟁은 두 가지 관점으로 파악해볼 수가 있다. 첫째는 횡적으로 드러난 착종(錯綜)의 관점이다. 백파가 〈선문수경〉에서 임제삼구에 근거하여 선리에 대한 여러 관점을 내세운 것에 대하여 초의는 일곱 가지 주제에 대하여 비판을 하였고, 백파의 견해에 대하여 우담은 초의와 다른 시각에서 네 가지 주제에 대하여 비판을 하였으며, 설두는 백파의 견해를 옹호하며 초의의 견해에 대해서는 여덟 가지에 대하여 반박하였고, 우담의 비판에 대해서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하여 반박하였다. 이후에 축원은 한편으로는 기존의 백파와 우담과 설두의 견해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백파와 초의와 우담과 설두의 사가(四家)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둘째는 종적으로 드러난 일관된 주제에 대한 구심점이다. 백파로부터 축원에 이르기까지 통시적으로 끊임없이 이들 논쟁을 관통하는 주제는 임제삼구, 삼처전심, 조사선 · 여래선 · 격외선 · 의리선의 관념과 배대, 살 · 활의 적용 등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개념들에 대한 착종이다. 백파는 조사선(격외선, 제일구)과 여래선(격외선, 제이구)과 의리선(격내선, 제삼구)의 삼종선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삼처전심 가운데서 제이처전심에 해당하는 염화미소(활인검)는 격외선으로 임제종과 운문종이 속하고, 제일처전심인 분반좌(살인도)와 제삼처전심인 곽시쌍부는 여래선으로 조동종과 위앙종과 법안종이 속하며, 의리선에는 선종오가 가운데는 해당하는 종파가 없다고 보았다.

백파의 견해에 대하여 초의는 삼처전심 모두 제일구에 속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명에 의거하면 조사선과 여래선이고, 법에 의거하면 격외선과 의리선이라고 하여 백파의 삼종선에 대하여 양중의 이종선의 개념을 내세운다.

초의의 견해에 대하여 우담은 백파의 삼종선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의미에 대해서는 비판한다. 우담은 삼처전심을 모두 조사선이고 격외선이며 교외별전이고 제일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이구인 여래선은 여래가 증득하고 설법한 교내의 의리이며, 제삼구인 의리선은 교내의 언교에 빠져 교중의 여래선을 증득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

초의와 우담의 견해에 대하여 설두는 여래의 삼처전심의 경우에 제일처는 분반좌이고 살인도에 해당하고, 제이처는 염화미소이고 활인검에 해당하며, 제삼처는 곽시쌍부이고 살 · 활(殺活)를 함께 제시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백파의 살인도와 활인검의 개념을 수용하여 그것을 우열의 근거로 삼아서 살 · 활이 나뉘어 전수됨으로써 비로소 여래선과 조사선 이선의 우열에 대한 변별이 생겨났다고 말한다. 또한 인(人)에 의거하면 여래선과 조사선이고, 법(法)에 의거하면 의리선과 격외선이지만, 이 격외선 가운데에 여래선과 조사선이 들어있다고 말한다.

위의 사가(四家)에 대하여 축원은 의리와 격외에는 모두 여래선과 조사선의 이선이 갖추어져 있어서 조사선과 여래선을 각각 격외선과 의리선의 관계로 논할 수 없다고 부정한다. 왜냐하면 의리선이 의리(義理)의 지해에 불과할지라도 가히 의리를 가지고도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에 따라서 여래선과 조사선으로 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조선후기에 촉발된 선리논쟁의 양상은 횡적으로는 인물들 간의 비판과 옹호와 반박으로 착종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종적으로는 삼구와 삼처전심과 선의 분류와 살 · 활이 서로 일정 부분 관련된 모습으로 선리논쟁의 전체를 관통하는 통시적인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한국선의 역사에서 출현한 선리논쟁은 13세기부터 임제삼구에 대한 해석의 방식이 그 연원이 되어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에 걸쳐 전개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단순히 임제삼구에 그치지 않고 여래의 삼처전심과 달마의 삼처전심, 그리고 삼처전심과 관련한 조사선(祖師禪)과 여래선(如來禪)의 배대, 삼구와 삼현과 삼요의 관계, 살인도(殺人刀)와 활인검(活人劍)의 적용, 삼구와 일구의 관계, 의리선(義理禪)과 격외선(格外禪)의 적용 등 선리논쟁의 범위에 대해서도 점차 널리 확장되어 갔다. 특히 중국 선종사에서 출현했던 남종과 북종의 정통논쟁 및 명말 청초에 전개된 법맥의 논쟁보다도 오랜 세월에 걸쳐 전개되었고, 또한 문정(門庭)의 우월의식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논쟁의 양상에 비하여, 조선 후기 백여 년에 걸친 치열한 논쟁은 순수한 선리논쟁의 역사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부여할 수가 있다.

〈동국대 HK교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 (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